

# 「제주경관의 사유화: 중산간 지역의 ‘박제된 경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강 만 익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저는 윌리엄 호스킨스(W. G. Hoskins)가 저술한 『잉글랜드 경관의 형성』(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을 대학원 농업지리학 수업에서 강독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방사(local history)의 전개과정을 경관사(景觀史)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까지 형성되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목장과 목축경관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제주의 역사와 지리를 엮어나가고 있어 오늘 저에게 중산간 경관 사유화에 대한 토론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들어 ‘제주경관의 사유화’에 대한 언론기사가 특정 지역개발의 문제점과 연계시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는 중국자본에 의한 송악산 리조트 개발여부와 이호해수욕장 주변 유원지 개발, 섭지코지 개발, 중문대포 지삿개 주상절리 주변 아파트건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례들은 ‘해안경관 사유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오늘 「제주경관의 사유화: 중산간 지역의 ‘박제된 경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는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경관의 사유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해안지역 함덕해수욕장에 자리한 <카페델몬도> 그리고 중산간에 입지한 <비오토피아 Biotopia>를 사례로 ‘제주경관의 사유화’를 문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셨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토론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관의 사유화’는 당연한 것이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관의 사유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지역개발과 관련 없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사유화’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유독 ‘개발에 따른 경관 사유화’만을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둘째, ‘경관의 사유화’를 ‘경관경험의 다중성, 개체성, 고유성에 대한 권리의 박탈’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그러면 ‘권리 박탈’을 당한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비체주인’이 토지를

매입해 경관을 사유화하면 제주인의 권리가 박탈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차제에 ‘경관의 사유화’를 바라보는 (신)문화지리학의 관점이 무엇인지, 나아가 발표자의 연구경험에 비추어 ‘제주경관’ 읽기를 위해 어떤 텍스트를 활용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제주경관’을 독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는 중산간 지대의 경관을 분석하는 용어로 ‘박제된 경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박제된 경관’에 대한 개념정의가 발표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제’는 국어사전에는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기고 썩지 아니하도록 한 뒤에 숨이나 대팻밥 따위를 넣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제된 경관’은 그야말로 중산간 고유의 경관을 상실한 채 ‘죽어있는 경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자가 ‘박제된 경관’의 사례로 제시한 <비오토피아>는 ‘죽어있는 경관’일까요? 비록 <비오토피아>가 “철저하게 돈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는 계층적 닫힌 공간”임에는 틀림없으나, <비오토피아>에 터를 잡은 경관형성 주체(상류층)들은 현재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비오토피아>라는 유토피아 경관 유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제주지역 중산간 경관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중층적’이어서 중산간 경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이론 및 접근법 그리고 역사자료를 모아 이것들을 상하좌우로 비교하고 융합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중산간 경관 하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의 중산간(200~600m)은 한라산 정상부와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완충지대로, 농경과 목축이 함께 이루어졌던 공간이며, 동시에 민란과 4·3의 흔적들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주의 중산간 지대가 최근 마을공동목장 매각 등으로 인해 다시 개발광풍에 위태롭게 노출되어 멀지 않아 중산간의 원풍경이 훼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제주의 중산간 경관을 보호할 정책이나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토론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